

그대 외로운 知性이여

—韓國科學史學會 1983 가을모임에 붙여—

辛 萬 敎

그대 이땅의 외로운 知性이여!
 想念의 江가엔 나일이 흐르고
 바빌론의 진흙밭이 열려 오는가
 에게海의 하늘 아래 펼쳐지는
 哲學의 새벽빛을 보고 있는가

原始의 수풀은 거기 있었고
 우리의 祖上 그 祖上은
 아득한 始原의 어둠 속에
 불을 붙였다
 먹고 살고 죽어가면서
 씨앗을 심고 살아가는 지혜를 이어왔다
 지나긴 어둠과 삶의 공포는
 하늘의 별들에 빌기도 하고
 祝祭의 동굴 속에 바람을 새기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千年에
 어둠은 더 짙은 어둠을 부르고
 알 수 없는 暴君들은 성곽을 더욱 높게 쌓아왔다
 아, 그러나 한가닥 불빛이 이어 왔으니
 人間의 심장 저 안쪽에서 꺼지지 않고
 불타는 思惟의 힘
 그것은 人間의 尊嚴이기도 하였어라
 그 불꽃은 마침내 마침내
 어둠의 성벽을 부수고
 歷史의 地平에 새벽을 열었어라

그대 외로운 이땅의 知性이여
 왜 그대들은 질주하는 都市文明의 번두리에 서서
 깨어진 기왓장을 깨어내고 있는가
 잊혀지고 버려진 草家の 옛터전을 헤치고 있는가
 거기 아직 꺼지지 않은 燈불이 있고
 世界의 변방에서 발버둥쳐온
 이땅의 지혜가 숨쉬고 있음인가

휴스턴의 하늘 위론 宇宙船이 치솟는데
 그래도 우리는 歷史의 물레를 돌리고 있다
 땀배인 쟁기며 녹슨 호미를 갈고 닦으며
 있음의 뜻을 생각하고
 초라함의 아름다움을 다시 세우고 있다

남들이 잠든 깊은 밤에도 우리는 깨어서
 구겨진 韓紙에 새겨진
 이땅의 精神을 한자 한자 판독하며 가리라

그대 외로운 이땅의 知性이여
 그대들은 외롭지 않고
 石工이 돌을 쪼는 千年 잠긴 그 소리에
 동터오는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
 돌을 쪼고 쪼아라
 그대 내 친구여
 石窟庵 화안하게 관음보살로 미소짓고
 그 아침 創造의 새 날개는
 東海를 박차고
 하늘 높이 날아 오르리

1983. 10. 8.